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project 섹션에서는 Jean Nouvel의 Les Bains des Docks, Renzo Piano의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M. Pei의 Museum of Islamic Art, 그리고, Gehry의 Art Gallery of Ontario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Lookling at contemporary China'라는 주제 아래 쓰여진 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주제로 Italy, Venice의 Ospedale dell'Angelo, New York에 지어진 Jacobi Medical Center, 그리고, Texas의 Methodist Stone Oak Hospital에 대한 기사가 흥미롭다.

■ Books

- In the Chinese City: Perspectives on the Transmutations of an Empire: by Prederic Edelmann. Actar, 2008
- Architecture of Modern China: A Historical Critique: by Jianfei Zhu. Routledge, 2009
- Coochandi: Beijing Inside Out: by Robert Mangurian, Mary-Ann Ray, Pi Li, Darien Williams. Timezone 8, 2009

다른 표준 시간대와 다른 인식론을 가진 이 세 가지의 책은 중국의 건축과 도시 건설에 대한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의미있는 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Jianfei Zhu는 그 지역이 가지는 통찰력과 이론을 섞어 조화를 이루었다.

Edelmann은 중국의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작은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angurian과 Ray 등은 도시촌에가게를 만들어 도시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중국을 정의한다는 것은 길을 잃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계속 방향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 이 각각의 책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질문을 할 것이며 또한 그 질문은 옳게 하고 있는 것일까?

■ Projects

Les Bains des Docks, France / Ateliers Jean Nou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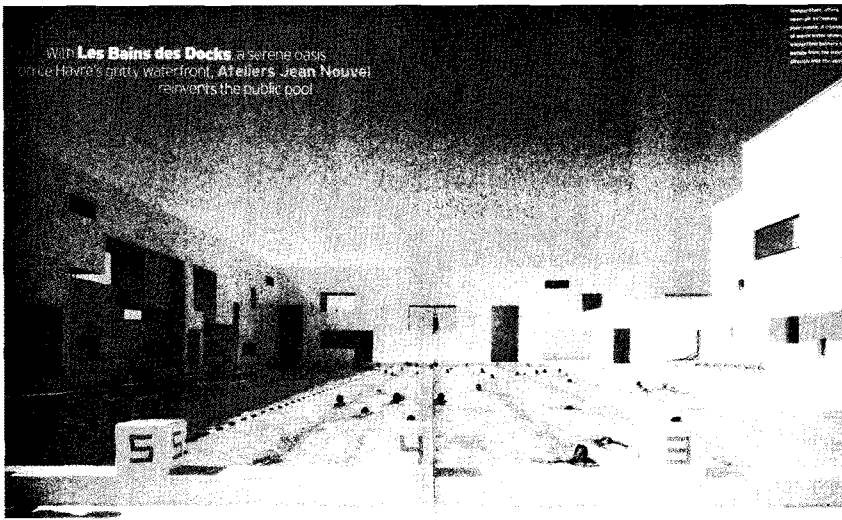
Ateliers Jean Nouvel은 Le Havre의 자갈섞인 해안가에 평화스러운 오아시스와 같은 공공 수영장인 Les Bains des Docks를 창조해 낸다.

지난 수십 년간 페리나 정기선을 타고 Le Havre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보다 빨리 이 항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껴왔다. 영국해협을 따라 있는 이 오래된 산업항은 황량하고 모래투성이의 장소로 알려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로부터 버림을 받아온 이래 "콘크리트는 아름답다."라는 유명한 견해를 가진 건축가 Auguste Perret에 의해 대부분 너적지 않은 예산으로 재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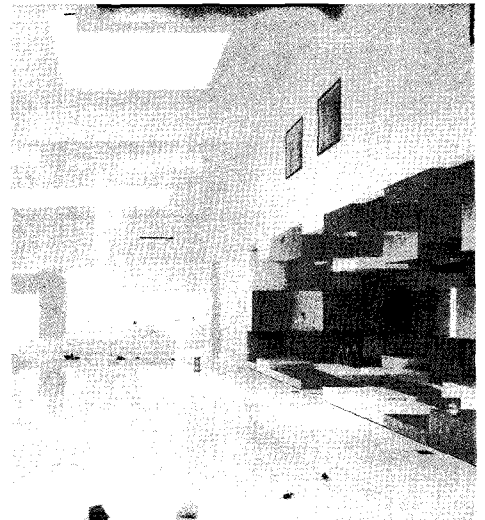
Perret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은 거의 오래 머물고자 하는 열망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변하고 있다. 영프해협터널이 완공된 이래 페리를 갈아타는 곳이라는 도시의 추락한 명성과 노화된 항구의 기반시설과 함께 Le Havre항은 활기차게 재탄생하고 있다. 현재 재생작업은 낮은 프랑스 항의 일부분을 신축과 낮은 창고들의 적절한 재사용을 통해 레저, 문화,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변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Jean

최현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With **Les Bains des Docks**, a serene oasis on Le Havre's gritty waterfront, Ateliers Jean Nouvel reinvents the public pool.



Les Bains des Docks

Nouvel의 작업 이외에 이미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Les Bains Des Docks이다. 이 Les Bains Des Docks은 공설 수영장의 개념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외부는 상자형으로 주조된 콘크리트 외피로 되어 어두운 회색으로 도장되어 있으며 그 형태면에서 주변의 창고와 비례적으로나 심플한 외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문 안쪽과 백색의 테라조로 된 계단은 순전히 흰색의 내부를 연출해 주고 있으며 태양광과 물, 준입체파의 블록형태의 삼차원 형태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리셉션 데스크 뒤편에 있는 입구계단의 맨 위에 있는 잔디 너머에 있는 수영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완전히 백색인 인테리어는 바닥, 천장, 그리고 벽이 모두 가로세로 20mm의 작은 모자이크형태의 유리 타일로 되어 있다.

이 밝고 반투명한 모자이크 타일은 공간적인 연속성과 이 건물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가 Mirco Tardio는 Le Havre의 특별하고 놀라운 정도의 태양광을 이용해서 내외부의 대조를 강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밝게 빛나며 2개층 높이의 리셉션 공간은 백색이며 태양광을 흠뻑 받아 이 건물에 대한 처음의 감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준다. 이 공간에는 물, 빛, 그림자, 그리고 목욕을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으며 타일로 된 데크로 둘러싸여 있어 1년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내부에는 병탕과 온탕, 월풀, 사우나, 터키탕 등 12종류의 다양한 옵션이 있다. 또한 다양한 크기, 다른 온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수, 물보라와 같은 장치들이 있거나 어떤 곳은 물로 된 베일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다.

Les Bains는 동시에 청각, 촉각, 시각에 호소한다. 태양광을 약하게 해주는 필터, 물의 반짝거림, 반짝이는 천장은 반투명한 타일을 통과해서 굴절된다. 야간조명은 미묘하게 수면 아래와 천장에 반쯤 가려진 조명에 의해 빛난다. 이곳, Les Bains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며 Le Havre에 확실하게 닻을 내려 우리가 더없이 행복하게 떠다닐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다.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inois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은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역사적인 구조물과 공공공간을 트레이드 마크인 고전주의로 다리를 놓는다.

여기에 다시 Renzo Piano가 디자인한 또 다른 건물, 예술 박물관이 있다. 지난해 Los Angeles에 지어진 Broad Contemporary Art Museum의 완공과 Boston의 Harvard Art Museum의 보수를 위한 계획, New York City의 Whitney Museum의 새로운 분관의 진행과 더불어 이 Pritzker상 수상자는 탐나는 프로젝트들만 진행함으로써 건축가들 사이에서 자신이 거의 독보적 존재라는 것을 즐기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10년째 진행 중인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의 새로운 건물은 사그러져가는 관심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Piano가 Atlanta에 있는 High Museum을 위해 고용된 해였던 1999년에

위임을 받은 이 근대적인 건물은 5월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건물에 주어진 규모와 Michigan로에 있는 Art Institute의 랜드마크 구조물과 시민들의 파라다이스라 할 수 있는 밀레니엄 파크 사이의 훌륭한 위치에 있는 이 새로운 건물은 단지 또 다른 건물이 아니었다. 원래 박물관 대지의 남쪽 끝에 작은 규모로 증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밀레니엄 파크가 세워질 계획에 따라 건물의 위치는 새로운 시청사가 건너에 있고 바로 맞은 편에 Pritzker 파빌리온이 있는 Monroe가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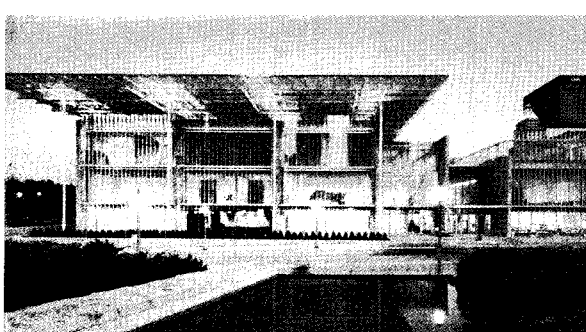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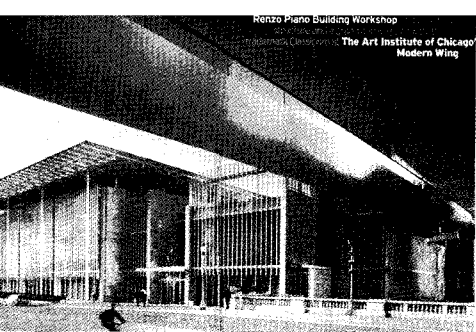
“Menil 컬렉션과 그의 다른 박물관들을 봐 왔기 때문에 우리는 Piano가 예술을 위한 위대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이 근대적인 건물은 Art Institute와 도시의 심장부를 묶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Art Institute의 전임 책임자는 회상한다.

RPBW(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은 보스턴 건축회사인 Shepley, Rutan, 그리고, Coolidge가 디자인한 기존의 구조물에 강한 연결을 창조해 냈다.

박물관-기존의 박물관은 확장과 더불어 완전히 리노베이션 되었다-에 가는 사람들은 예술 안에서 그들 자신을 잃어버리고 박물관 그 자체를 즐긴다는 조언을 하였다. Piano의 이 매우 혁신적이고 모듈화된 갤러리는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져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없는 방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아트리움같은 Griffin Court는 적어도 그 정신적인 면에서 Michigan로에 면해 있는 입구로부터 들어오는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계단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Griffin Court 안에서는 은같은 느낌의 Frank Gehry의 Pritzker 파빌리온을 바라볼 수 있다. 태양광이 흘러들어오는 두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배 높이의 공간은 이 새로운 건물의 주 동선이 된다. 이 새로운 근대적인 건물의 매력적인 상자형의 매스는 밀레니엄 파크의 소위 열광적인 건축과 바로 마주하고 있으며 “나르는 카펫”이라고 불리는 캐노피가 건물의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다.

Piano는 3층에 조각 작품을 놓은 테라스와 그맞은 편에는 레스토랑을 만들었다.

3층의 갤러리를 덮고 있는 막은 유리로 된 창과 나르는 카펫으로부터 자연광을 걸러낸다. 관대한 스케일, 미시건호와 이 도시의 유명한 스카이라인의 매력적인 광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카고를 걷는다는 것은 멋진 경험이다. 이 활기찬 건물은 시카고의 멋진 건축적 유산에 화답하듯이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에 아주 알맞게 스며들어 미래를 위한 무대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Art Gallery of Ontario, Canada / Gehry International

Frank Gehry는 그와 갤러리의 과거를 재발견함으로써 Art Gallery of Ontario를 부분적으로 변형한다.

Art Gallery of Ontario(AGO)에서 Frank Gehry는 건축을 가지고 스피드와 균형이 중요한 하키 게임을 하였다.

Dundas가를 따라 달리는 차들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듯한 입구 파사드의 곡선형태

의 유리로부터 가파른 지그재그의 램프, 그리고 박물관의 중앙에 있는 나선 계단에 이르기까지 열렬한 하키 팬인 Gehry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천천히 다니게도 하고 또 다시 쳐올리기도 하였다.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도시의 첫 번째 건물인 AGO는 시간과 추억으로 하여금 미묘한 역할을 하게 하였다.

건축가의 외조부님들이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셨기에 그는 박물관 근처에 있는 Grange Park에서 자주 놀았다.

그가 8살 때 처음 AGO를 방문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 중앙에 있던 Darling&Peason이 설계한 열주로 이루어진 공간인 Walker Court에서 John Marin의 바다그림을 보았다는 것을 아련하게 떠올리며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박물관의 부분적인 수리들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계획에서 Walker Court의 결출함은 서서히 사라져 갔다.

1993년 이 박물관이 확장되어 오픈하였을 때 Barton Myers는 박물관을 주출입구를 동쪽으로 옮김으로써 Walker Court와 institute가 처음 보금자리를 튼 19세기 맨션인 Grange를 통해 생겨난 역사적 축에서 벗겨지게 하였다. Myers의 디자인은 Dundas가와 McCaulrk의 복잡한 교차로 가까운 곳에 주출입구를 옮겨 기존보다 덜 직접적이고 보다 혼란스러운 새로운 동선을 소개하였다. Gehry의 첫 번째 결정은 박

물관의 입구를 어린 시절의 기억대로 기존의 축에 맞추어 옮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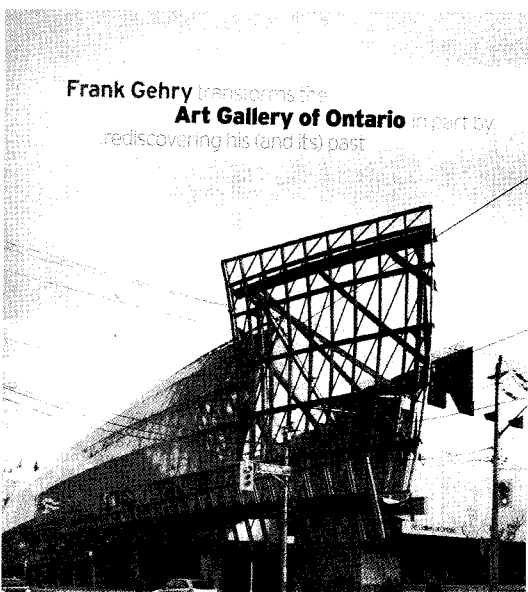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 전체를 통해 나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부려서 사용함으로써 Gehry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하키스틱과 모든 아이스 링크의 스케이트 표면의 판에 대한 느낌을 추상적인 방법으로 불러일으키게끔 하였다. 그의 새로운 Dundras가의 입면은 2층 높이의 창문, 스틸, 그리고 나무로 된 캐노피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준다.

건물의 동쪽과 서쪽의 끝에서 Gehry는 전시를 알리는 배너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향해 표면을 각이 지게 만들었다. 또한 현대미술과 유럽의 Thomson Collection을 위한 갤러리를 디자인하기 위해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새로이 지은 남쪽 타워에는 근대 미술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높이와 태양광을 이용하였고 반면 유럽의 예술작품을 위해서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어 내면서 기존의 갤러리를 리노베이션하여 사용하였다.

“Frank는 건물을 통한 여행을 만들어 냈다. 그의 디자인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어떤 경험과 같은 것이다.” 라고 ACO의 책임자이자 CEO인 Matthew Teitelbaum은 이야기한다.

그 형태로 단지 어떤 시선을 잡아놓는다고 보다는 ACO는 움직임과 휴식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의해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

Art Gallery of Ontario



Frank Gehry transforms the Art Gallery of Ontario in part by rediscovering his (and its) past

